

이슈

2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3041호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3일(한국시간) 토리노의 알리안츠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맞아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팀에 3-0으로 승리를 안긴 뒤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토리노(이탈리아) | AP뉴시스

호날두·메시, UCL 통산 주요기록 비교		
호날두	비교	메시
34세	나이	32세
유벤투스	소속팀	바르셀로나
160게임	출장경기	130게임
124골	득점	106골
8회	헤트트릭	8회

AT 마드리드 꺾고 UCL 기적 8강

위대한 호날두

UCL 8호 헤트트릭...메시와 동률 통산골선 124-106 압도적인 리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가 특별한 하루를 만들었다. 안방에서 기적을 연출하며 소속팀 유벤투스(이탈리아)를 구해냈다.

유벤투스는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알리안츠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에서 호날두의 헤트트릭을 앞세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를 3-0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원정 1차전 0-2 패배로 탈락 위기에 몰렸던 유벤투스는 1·2차전 합계 3-2를 기록하고 대회 8강에 극적으로 진출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호날두의 원맨쇼였다. 0-0으로 맞선 전반 27분 페데리코 베르나르데스키가 왼쪽 코너 부근에서 올린 크로스를 머리로 연결해 선제골을 기록했고, 후반 4분에도 다시 한번 헤더를 통해 상대 골망을 갈랐다. 이어 후반 41분 베르나르데스키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차 넣어 3-0 승리를 완성시켰다.

이날 맹활약으로 호날두는 영원한 라이벌 리오넬 메시(32·아르헨티나)와 UCL 통산 기록 경쟁에서도 사실상의 우위를 점하게 됐다. 총 160경기 출전과 124골로 130게임 출장과 106골에 그친 메시를 크게 따돌렸다. 동시에 유일하게 뒤져있던 UCL 통산 헤트트릭 횟수에서도 8개로 동률을 이루면서 열세를 지워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날 경기 후 호날두와 메시의 라이벌 구도를 재조명했다. BBC는 "UCL의 아버지로 불리는 호날두가 다시 한번 해냈다. 우상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극찬한 뒤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신은 호날두와 메시 가운데 누구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생각하느냐"며 다시금 불이 지펴진 둘의 경쟁 구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고봉준 기자 shulou@donga.com

서울국제마라톤 17일 오전 8시 스타트



2019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90회 동아마라톤이 17일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잠실올림픽주경기장으로 끝나는 코스는 '서울의 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인정하는 국내 유일 골드라벨 대회인 서울국제마라톤의 지난해 출발 모습.

3만8500명 마라토너, 서울의 봄을 연다

(단일 마라톤대회 최대 참가자)

10년째 국내 유일의 골드 라벨 대회 10월 전국체전때도 같은 코스 사용 외국인 3620명...완주한 기념 메달 풀코스 3시간내 끝낸 명예의 전당



서울에 '마라톤의 봄'이 찾아온다.

2019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90회 동아마라톤이 17일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오전 8시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잠실올림픽주경기장으로 끝나는 코스다.

서울국제마라톤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인정하는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다. 라벨을 받은 국내대회는 서울국제마라톤과 대구국제마라톤(실버등급) 뿐이다. 2010년 처음 골드 라벨을

받은 서울국제마라톤은 10년째 명성을 지키고 있다.

올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도 서울국제마라톤 코스와 동일하게 조성될 예정이라 서울국제마라톤에 참여할 또 다른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체전을 미리 뿔 기회를 얻는 셈이다.

대한민국 명품 마라톤대회답게 참가자 모집부터 각종 신기록이 쏟아졌다. 지난달 20일 참가접수가 조기 마감된 참가 신청자가 4만 명을 넘겼고, 이 가운데 외국인 3620명을 포함해 3만8500명(풀코스 2만 명, 10km 1만5000명, 42.195km 레이 3500명)이 출전권을 얻었다. 국내 풀코스 대회접수가 조기 마감된 것은 2004년 서울국제마라톤 이후 15년 만으로 단일 마라톤대회에서 3만8500명이

뛰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국제마라톤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다. 풍성한 기념품이다. 국내 개최 단 일종목 최대 이벤트답게 완주 기념메달이 특별 제작됐다.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만 제공될 메달은 대회 로고와 함께 서울 지도에 '01'을 새겼다.

'동아마라톤 마스터스 명예의 전당'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한국 국적의 마스터스 마라토너들을 대상으로 풀코스를 2시간59분59초 이내로 완주하면 S ub-3(서브쓰리) 회원증서 및 인증배지를 증정하며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을 부여한다. 서브쓰리는 전 세계 마스터스 마라토너들이 꿈으로 여기는 기록이다.

'명예의 전당'은 마라톤 저변확대와 풀뿌리 마라토너들의 기록 향상을 위해 2005년 10월 경주오픈마라톤대회부터

시작됐는데,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에서 3시간 이내 결승선을 통과하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현재까지 '명예의 전당'에는 3587명이 입회돼 있고, 역대 최고기록은 김창원 씨가 2007년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세운 2시간18분39초다. 선물은 또 있다. 상위 입상자는 올해부터 동아마라톤의 새로운 식구가 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의 협찬 지원을 받아 11월 미국 뉴욕에서 열릴 뉴욕시티마라톤에 참가하는 행운을 얻게 된다. 뉴욕시티마라톤도 뉴발란스가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는 대회로 서울국제마라톤 풀코스 완주 기록을 확인해 출전자가 발표된다. 뉴발란스는 뉴욕시티마라톤 참가권과 교통, 숙박 일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주최: 서울특별시,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동아마라톤광문주재단 | 협찬: SAMSUNG, new balance, KB 금융그룹, samyang, S-Oil | 방송: CHANEL, arirang, CCTV5 | 주관: SPO-EX.COM

경찰 고위간부 연루 의혹... '승리 게이트' 그 끝은 어디인가

2016년 7월 문제의 카톡방 대화서 "경찰총장이 우리를 봐주고 있다" 최중훈 음주운전 보도 무마 정황도 민감풍 경찰청장 "철저히 발본색원"

성 접대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승리의 단체 카톡방' 파문이 결집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이번엔 경찰 고위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승리 게이트'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이트'는 권력 유착 비리 의혹을 일컫는 말로,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그가 사내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관계



승리

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대화방은 승리가 2015년 12월 해외 투자자 성 접대를 암시하는 대화를 지인들과 나누고, 정준영이 성관계 '몰카' 영상을 올려 이들과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해당 단체대화방에 "옆 업

소가 우리 업소를 사진 찍고 신고했는데 '경찰총장'이 격정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는 '경찰총장'이라는 직위가 없다. 경찰은 대화 참여자가 실제 경찰 고위간부를 가리키며 단순 오타를 냈는지 여부 등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화가 오갈 당시 재임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해당 연예인들의 얼굴도 알지 못했다"며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룹 FT아일랜드의 멤버 최중훈이 2016년 3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 관계자를 통해 관련 보도를 무마하려 했다고 의심해 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YTN은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또 그 즈음 '팀장이 생일을 축하해

줬다"는 언급도 등장해 경찰은 경찰 관계자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중훈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그가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250만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면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감풍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최고위층이 연루됐다는 유착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감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떠한 비리나 범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체대화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국민권익위는 이를 대검찰청에 이첩하며 승리의 성 접대 의혹과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혐의 인정한 정준영...경찰, 증거물 확보 총력전

경찰, 강남 포렌식업체 압수수색 정준영 마약류 투약 여부도 조사 승리·정준영 오늘 함께 경찰 출석

성관계 '몰카' 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이 13일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그의 혐의를 깨고 있다. 성 접대 혐의의 승리와 함께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



정준영

대화방에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에게 "무릎 꿇어 사죄드린다"면서

"제가 범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증거물을 찾기 위해 이날 서울 강남의 사설 포렌식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포렌식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저장 자료를 복원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업체는 정준영이 2016년 9월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곳이다. 그는 당시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고장 나 수리업체에 맡겼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정준영의 마약류 투약 여부도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니 정준영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도 14일 경찰에 나온다. 지난달 27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며 모든 의혹을 부인한 그는 10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또 다른 이들도 불러 승리와 동시 조사를 벌인다.

한편 정준영과 승리의 각 소속사인 메이 크어스 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는 13일 두 사람과 맺은 전속계약을 각각 해지한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